

김태군 “우승 결정구는 ‘직구’...힘으로 승부하고 싶었죠”

KIA, KS 우승 확정 그 순간

9회초 2아웃 마지막 결정구 고민 정해영 “삼진잡고 싶어 꺾먹던 힘까지”

우승 포수가 돼 마운드에서 포효한 ‘안방마님’ 김태군은 우승 순간을 돌아보면서 “냉정하지 못했다”고 웃었다.

KIA 타이거즈의 김태군은 지난 28일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7-5로 앞선 9회 마무리 정해영과 호흡을 맞췄다.

앞선 8회 2사 만루에 한 박자 빠르게 마운드에 올랐던 정해영은 이재현을 유격수 파울 플라이로 돌린 뒤 다시 9회 마운드에 올랐다.

정해영은 첫 타자 이성규를 3구째 헛스윙 삼진으로 잡은 뒤 대타 윤정빈은 4구째 2루 땅볼로 처리했다.

우승에 남은 아웃카운트는 하나, 김성운을 상대로 변화구로 초구 헛스윙을 유도한 정해영은 2구 볼 뒤 3구째 직구로 다시 한번 방망이를 헛들게 하면서 2스트라이크 1볼이라는 유리한 볼카운트를 만들었다.

스트라이크 하나면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김태군

의 사인은 직구였다.

김태군은 “우승을 앞두고 계속 냉정해지려고 했다. 마지막 순간 머릿속에 든 생각은 ‘그래도 마무리 피쳐인데 직구로 끝내야지’였다. 냉정하지 못했다”고 웃었다.

마무리답게 힘으로 승부하기 위해 김태군은 직구 사인을 냈고 정해영의 150km 강속구에 김성운의 방망이가 다시 헛들면서 7년을 기다렸던 12번째 우승이 확정됐다.

김태군의 사인에 맞춰 우승을 완성한 정해영은 “힘으로는 우리가 유리한 상황이었다. 헛스윙 만들 수도 있지만 괜히 변화구 던졌다가 장타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 김태군 선배가 그런 걸 잘 아시니까 사인대로 했다”고 마지막 공을 이야기했다.

이어 “삼진 잡을 줄은 몰랐다. 잡고는 싶었다. 꺾먹던 힘까지 다했다”고 웃었다.

KIA 마무리와 최고의 마지막 순간을 장식한 김태군은 “마지막 삼진을 잡은 뒤 이제는 됐다,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행복하다”고 이야기했다.

행복한 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함이 컸던 순간이기도 했다.

김태군은 “우승하는 순간에 과거의 일들이 필름처럼 지나가서 너무 많이 울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다. 미안한 마음도 컸다. 나한테 욱먹으면서 1

군 엔트리에 있던 도영이, 찬호, 해영이, 현종이 형 선수들이 생각났다. KIA에서 이런 캐릭터 처음 봤을 것이다”며 “도영이, 찬호는 야구하면서 그렇게 욱하는 선배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생각 많이 났다. 고생한 것도 한 것인데 미안한 마음이 더 컸다. 우승을 바라보는 시즌이라고 생각해서 (잘못된 부분은) 이해를 안 하려고 했다”고 강하게 동료들을 밀어붙였던 것에 대한 미안함을 이야기했다.

이번 한국시리즈에서 김태군은 MVP급 활약을 하면서 팀 우승을 이끈 주역이 됐다.

포수로 투수들을 리드하고, 작전 상황에서도 빠르게 움직이면서 삼성의 흐름을 꺾었다. 그리고 타석에서도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다. 김태군은 4차전 승부에서 프로 첫 만루홈런을 장식하고, 포효하기도 했다. 한국시리즈 역사상 기록된 5번째 만루홈런이었다.

그리고 KIA의 우승으로 잔치가 끝나면서 ‘한국시리즈 만루홈런=우승’이라는 공식도 이어지게 됐다.

김태군은 이런 활약으로 MVP 후보로 언급됐지만 아쉽게 김선빈에게 1표 차로 밀려 기대했던 수상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김태군은 “그래도 저는 89년생 친구가 받아서 기분 좋다. 내 친구가 받아서 기분 좋다”며 김선빈의 MVP 등극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8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5차전 삼성 라이온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삼성에 승리하며 7년 만에 통합우승을 달성한 KIA 포수 김태군과 마무리 투수 정해영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장애인사격 이윤리 “LA 패럴림픽서 금메달 꼭 딸 것”

장애인체전서 메달 5개 획득

전남 장애인사격 이윤리(완도군청·사진)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메달 전지를 받았다.

이윤리는 이번 대회에서 총 5개 메달(금2·은1·동2)을 수확했다.

그는 지난 26일 여자10m공기소총 입사 R2 개인전 SH1 1위로 메달 신포탄을 쏘아 올렸다.

정진동·박영준·전진화(이상 전남)와 출전한 단체전에서는 혼성 공기소총 복사 R3 단체전 SH1 종목 은메달(총점 1883.8점), 혼성 50m소총 복사 R6 단체전 SH1 종목 동메달(총점 1790.2점)을 합작했다.

이윤리는 각각 631.7점, 603.2점을 쏘며 팀 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활약했다.

또 이번 대회를 통해 여자 50m소총 3자세 R8 개인전 SH1 종목 3연패를 이뤘다. 그는 지난 2022년 제42회 대회 447.9점, 제43회 대회 452.4점으로 대회 신기록을 세운 데 이어 28일 치러진 경기에서 458점을 쏘며 스스로를 뛰어 넘었다.

그는 “파리 패럴림픽 폐막 후 피로도가 높아 그

간 훈련에 많이 시간을 쏟지 못했다. 감독이자 남편인 이춘희 전남장애인사격연맹 감독에게 사격 입문 때부터 기초를 탄탄히 배웠던 터라 잠깐 몸 상태가 좋지 않아도 성적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윤리는 지난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 여자 10m공기소총 입사 R2 개인전 SH1 결선에서 246.8점으로 2위에 오르며 한국에 첫 메달을 선사한 바 있다.

그는 “은메달이 아쉬웠던 건 아니다. 당시 은메달만 따도 감사하자는 마음으로 임했고, 실제로 금·동메달은 있는데 은메달만 없어서 예쁘게 전시할 수 있겠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이번 대회 마지막 경기로 나선 혼성 50m소총 복사 R6 개인전에서 224.1점으로 동메달을 따낸 이윤리는 “평소 훈련할 때 사격 시 생기는 반동에 흔들리지 않도록 몸의 중심을 잡는 것에 집중한다”며 “더 열심히 준비해 오는 2028 LA 패럴림픽에서는 꼭 금메달을 따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해 글·사진 서민경 기자 minky@



페퍼스, 어깨 부상 자비치 대체 테일러 프리카노 영입



190cm 장신에 블로킹 등 강점

페퍼스측은 행 AI페퍼스가 외국인 선수를 교체한다.

페퍼스는 29일 바르바라 자비치를 대체할 외국인 선수로 미국 국적의 테일러 프리카노(사진)를 영입한다고 전했다.

페퍼스는 지난 5월 2024-2025시즌 KOVO 여자부 외국인 선수 트리아아웃을 통해 아포짓 스파이커 자비치를 1순위 지명했지만 부상 등의 이유로 교체를 결정했다.

아포짓 포지션의 테일러 프리카노는 신장 190cm를 자랑하며 최근까지 루마니아의 ‘CSO Voluntari 2005’팀에서 활약했다.

페퍼스의 새로운 식구가 된 프리카노는 “한국에 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 수준 높은 한국리그를 경험하고 리그 일원이 되는 것을 고대하

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자 발급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경기에 투입될 예정이다.

장소연 페퍼스 감독은 “자비치가 시즌 전 입은 어깨 부상이 있어 전체 시즌을 정상적으로 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프리카노는 미들포지션도 소화했기 때문에 블로킹 감각이 좋고 플레이의 다양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졸업하고 체코·스위스·미국·프랑스 등에서 활동했던 프리카노는 지난 2023-2024시즌과 이번 2024-2025시즌 KOVO 트리아아웃에 두 차례 지원한 바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보성서 전국대학검도연맹전 열린다

31~11월 3일 다향체육관

전남 보성에서 전국 대학검객들의 승부가 펼쳐진다.

총 61개 대학 450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하는 ‘제 55회 추계전국대학검도연맹전’이 보성 다향체육관에서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나흘간 펼쳐진다.

광주·전남에서는 총 6개 대학(초당대, 조선대, 국립목포대, 전남대, 동신대, 광주여대)의 검객들이 나서 기량을 겨룬다.

초당대가 남자1·2부와 여자1부, 조선대와 국립목포대가 남자1부 경기에 나서며, 전남대는 남·여 동아리부, 동신대와 광주여대는 여자 동아리부에 출전한다.

광주·전남 검객들은 올해 다양한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만큼 이번 대회에서의 활약 또한 주목된다.

초당대 검도부는 지난 5월 대통령기 대회에서 남자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국립목포대 검도부는 지난 3월 춘계전국대학검도연맹전에서 남자 단체전 2연패를 거머쥐었고, 전남대는 같은 대회 여자 동아리부 단체전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번 추계 대회는 본격적인 경기를 앞두고 31일 진행되는 합동 연습으로 막을 올린다.

11월 1일에는 남자1부 개인전, 11월 2일에는 개회식과 여자1부, 남·여 2부, 남·여 동아리부 개인 및 단체전이 펼쳐진다.

대회 마지막 날인 11월 3일에는 남자1부 단체전에 이어 시상식 및 폐회식이 진행된다.

한편, 이번 대회는 한국대학검도연맹이 주최하고 전남검도회, 보성군검도회가 주관하며 보성군, 보성군체육회, (사)대한검검도회, 전남검도회가 후원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조조선섬유조형회 특별전

: 엮고 물들여 쌓은 아름다움으로 위로하다

일시 : 2024-11-1(금) ~ 2024-12-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10월)

일시 : 2024-10-05(토) ~ 2024-10-31(목)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0.31(목) 오후 7시 기획공연 (강하달림 시월 Bluse)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2024 광주상설공연(10월)

일시 : 2024-10-05(토) ~ 2024-10-31(목)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0.31(목) 오후 7시 기획공연 (강하달림 시월 Bluse)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